

# 전기차 생산 준비 '순항' GGM, 연동 시운전 돌입

조립공장 설비구축 마무리  
분야별 시운전도 성공적  
6일부터 차체공장 재가동  
내년초 캐스퍼EV 시험생산



4일 광주글로벌모터스 조립공장에서 진행된 전기차 연동 시운전 개시식에서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연동 시운전 버튼을 누르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제공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설비구축을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연동 시운전'에 돌입하면서 캐스퍼 EV 생산에 순조롭게 다가가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4일 오전 조립공장에서 전기차 연동 시운전 개시식을 열고 전기차 생산을 향한 발걸음을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연동 시운전은 각 설비 분야별로 시운전을 통해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분야별 설비 상태가 완벽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모든 분야를 연계해 전체적인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시험생산 이전의 마지막 단계로 볼 수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이날 조립공장 연

동 시운전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26일까지 차체 공장 연동 시운전을 마치고 27일부터 30일까지는 도장공장 연동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연동 시운전의 마지막 단계인 조립공장 역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분야별 시운전을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이날부터 연동 시운전에 들어간 것이다. 연동 시

운전이 문제없이 마무리된다면 기존 계획했던 이달 10일보다 빠른 6일부터는 공장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6일 차체공장을 시작으로 7일 도장공장, 11일 조립공장 순으로 공장 재가동에 들어가 기존 캐스퍼 생산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 EV 생산 및 내연기관과 전기차 생산 병행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달 4일부터 전라인의 생산 공정을 중단하고 한 달여간 전기차 생산시설 기반 구축을 진행해 왔다.

단계별 시운전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에 따라 내년 2월에는 캐스퍼 EV의 시험생산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험생산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돌입하게 된다.

캐스퍼 EV 생산은 비단 해당 차종의 전기차 생산에만 의미가 있지 않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병행 생산이 가능토록 라

인을 재정보험에 따라 내수와 수출을 병행함은 물론, 추후에는 차종 다양화까지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본격적인 전기차 양산에 돌입하기 앞서 2교대 인력 충원으로 다시 한번 지역에서 대규모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이뤄질 예정이다. 올해 생산 목표였던 4만5000대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는 "지난 한 달 동안 전기차 설비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연동 시운전에 들어가는 등 전기차 생산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 시험생산을 거쳐 하반기에는 최고 품질의 전기차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설비구축을 위해 잠시 중단했던 공장도 재가동에 들어감에 따라 올 생산 목표인 4만5000대를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 금호타이어, 중국서 '2023 CGD 어워드' 본상 수상

전기차 전용 타이어 PS71 EV  
고부하·노이즈 감소 등 최적화

금호타이어가 2023 CGD 어워드(2023 Contemporary Good Design Award)에서 전기차 전용타이어 엑스타(ECSTA) PS71 EV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CGD 어워드는 국제 4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독일의 레드닷(Red Dot)과 샤먼 웬광 미디어 그룹(Wenguang Media Group)이 2015년 공동으로 창립했으며, 60여년에 걸친 레드닷의 국제 디자인 상 운영 경험과 디자인 자원을 활용해 국제 표준에 맞춘 전문성과 엄숙성, 권위성으로 출품작을 심사한다.

엑스타 PS71 EV는 금호타이어가 성장하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설계한 제품으로, 금호타이어

의 CAE(컴퓨터 시뮬레이션 설계 기법), AI Optimum Design(인공지능 최적 설계), Virtual Test(가상현실 테스트) 등 기술을 활용해 전기차 타이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고부하를 견디는 성능과 내마모성, 노이즈 감소 성능을 최적화해 개발한 제품이다.

이에 금호타이어는 확대되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을 겨냥한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개발 및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082만대(판매점유율 14%), 중국 전기차 자동차 판매량은 688만대(판매점유율 25%)로, 전 세계 평균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2025년에는 중국의 비중이 1500만대(판매점유율 35%)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곽지혜 기자

## 보해양조, 소비자 트렌드 반영 신제품 출시 '호응'

'제로 슈거' 열풍 앞서 소금 활용  
바다보호 '스몰액션' 캠페인 전개  
막걸리 콜라보·캔하이볼 등 인기

향토기업인 보해양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발맞춰 다양한 제품을 선보여 소비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4일 보해양조에 따르면 식음료를 더 건강하게 즐기자 하는 '헬시 플래저(Healthy Pleasure)'가 주목받으면서 올해 주류업계에서는 '설탕'을 뺀 소주가 출시되고, 기존 제품을 '제로'로 리뉴얼하는 시도가 이어졌다.

앞서 보해양조는 '제로 슈거'가 주목받기 전인 지난 2021년 그간 주류업계에서 이어져 온 '쓴맛은 단맛으로 없앤다'라는 고정관념을 허물며 소금으로 쓴맛을 잡은 '보해소주'를 출시했다. 제로 슈거를 위해 시중의 대부분 희석식 소주가 설탕 대신 대체당으로 맛을 내는 대신 보해소주는 신안 토판염 등 세계 3대 소금을 넣어 깔끔한 맛을 구현했다.

신선한 컨셉으로 인기를 끈 보해소주는 전국 편의점과 대형마트에 입점되며 출시 1년 만에 200만병 판매를 돌파하기도 했다.

올해 보해양조는 보해소주의 원료인 소금이 나는 바다를 보호한다는 목표 아래 사회 공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추진했다. 전국 최초로 플로깅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보해소주 플로깅 센터'를 오픈하고, 다양한 굿즈를 제작할 수

있는 '스몰 액션 스토어'를 운영하며 소금을 활용한 대표적인 제로 슈거 제품인 보해소주의 마케팅에 박차를 가했다.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MZ 세대에 발맞춘 '이색' 콜라보도 이어졌다. 높은 확장성을 가진 주류 업계는 같은 식품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캐릭터, 게임, 테크 등 다양한 분야와의 콜라보를 선보였다.

보해양조는 지난 3월 디저트 카페 설빙과 협업을 통해 '설빙 흑임자순희' 막걸리를 출시했다. 지난해 출시 당시 2주 만에 홉플러스 막걸리 카테고리에서 매출 1위를 기록했던 설빙 인절미순희에 이어 두 번째 만남이다. 설빙 흑임자순희는 100% 국내산 쌀로 만들어 탄산함량이 적고 깔끔한 순희막걸리에 구수한 흑임자가 더해진 제품으로 '할매니얼(할머니+밀레니얼)' 입맛을 저격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내에서 위스키, 하이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RTD(Ready To Drink)' 캔 하이볼도 인기를 끌고 있다. 맛있는 하이볼을 위스키 배합이나 재료에 대한 고민 없이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인기 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5월 보해양조가 출시한 매실 하이볼 '순' 또한 편의점에서 구입해 바로 마실 수 있는 RTD 캔 제품이다.

매실 하이볼 '순'의 판매처인 GS25의 3분기 RTD 하이볼 매출은 1분기 대비 221.5% 증가했다. 매실 하이볼 '순'은 오크집 등으로 향만 첨가하는 시중의 타 RTD 캔 하이볼과 다르게 전통적 제조 방법으로 만들어진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을 베이스로 활용했다. 여기에 보해양조가 직접 재배한 청정 해남 매실을 더해 풍부한 맛을 캔으로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소비자 니즈가 다양해짐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에 발맞추는 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앞으로도 보해양조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제품 개발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주류 선택지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강화하며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왼쪽부터 RTD 하이볼 매실 하이볼 '순' '설빙 흑임자순희' '보해소주'

## "온 국민, 온기 나누자"... '눈꽃 동행축제' 개막

올 연말까지 28일간 진행

소비심리 회복 및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한 '2023 눈꽃 동행축제'가 '온 국민 힘 모아,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과 함께 4일 개막했다.

이번 '눈꽃 동행축제'는 이날부터 28일간 진행되며 광주·전남지역 15개 기업을 포함해 전국 100개 기업이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지역 행사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 △온기 나눔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축제 기간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제품 판매전을 개최,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상권 11곳에서는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구매고객에 경품 제

공 이벤트 등을 연다. 또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백년가게에서도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마련된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송정시장 '크리스마스 소상공인 플라마켓'과 곡성·함평·광양 등에서 '2023 동행축제 연계 나눔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개 채널에서는 크리스마스, 연말연시, 겨울방학 등을 맞아 수요가 많아진 선물, 방한용품,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한도를 30만원 상향해 모바일·충전식 카드의 경우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동행축제 상품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 또는 buykr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박소영 기자

## 광주신보, 카카오뱅크와 소상공인 보증 지원

광주신용보증재단(광주신보)은 카카오뱅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4일부터 1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광주신보에서 발급한 보증

서를 통해 카카오뱅크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협약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카카오뱅크 앱에서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광주신보 홈페이지(www.gjsinbo.or.kr)에서 상담예약 후 재단 영업점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금리 상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카카오뱅크에서 보증료를 50% 지원한다.

한편 광주신보는 올해 11월까지 소상공인(골목상권) 특례보증을 비롯해 6833억원의 대출에 대한 보증 지원과 대출금리의 3~4%인 약 32억원을 지원(이차보전)해 최근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가문의 단비 역할을 하고 있다.

박소영 기자